

보성군, 서울 2시간 30분·부산 2시간 시대 열린다

국토교통부, 보성군민 대상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개최

광주 송정~보성~순천 94.2km 2조 원 투입 대형 국책사업

보성군은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광주~보성~순천 단선전철 사업 전략 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설명회'가 16일 보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경전선 광주 송정~보성~순천 단선 전철화 사업은 총연장 94.2km에 2조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2023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24년에 착공할 예정이다.

시속 250km로 달리는 경전선 전철

화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보성이 2시간 30분에 주파되고, 부산~보성은 2시간 만에 도착할 수 있어 보성군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완성된다.

이날 주민설명회는 보성군민을 비롯한 김철우 보성군수, 김재철 보성군의회 의장, 국토교통부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에서 국토교통부는 광주~보성~순천 단선전철 사업이 주변 자연경관,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 등

제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진동과 소음 등 생활 불편 저감 방안을 주민과 공유하는 자리였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광주~보성~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철도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소음·진동 등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환경영향 최소화 계획이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은



4. 2.까지 보성군청 환경생태과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공고문은 보성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보성=김덕순 기자

광양시,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신규단원 모집

초등 3학년부부터 중학생까지

광양시는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운영 중인 광양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신규단원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광양시에 주소를 둔 지역 내 초등학교 3학년~중학생 중 음악적 관심과 실력을 겸비한 학생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접수는 오는 3월 22~26일 광양시 문화예술과(의회동 4층)에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pw0825@korea.kr)로도 신청 가능하다.

실기전형으로 초등학교는 지정곡 1곡(하늘나라 동화)과 자유곡 1곡, 중학생은 준비한 교과서 수록곡 중 1곡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간단한 음역, 안무, 음감 테스트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실기와 면접은 오는 4월 3일 합창단 연습실(문화예술회관 지하 1층)에서 실시되며, 응시원서 등 모집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gwangyang.go.kr) 공지사항 또는 공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광양=심종섭 기자

고흥군, 내년 어촌뉴딜 300 공모 준비 박차

고흥군은 "2022년 어촌뉴딜300사업"의 공모사업을 내실 있고, 성공적인 유치를 위한 발 빠른 행보에 나서고 있다.

'어촌뉴딜300사업'은 낙후된 어촌·어항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주민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속가능한 어촌의 혁신성장을 돕는 지역발전과 생활발전형의 SOC사업이다.

고흥군은 2022년 공모사업 대비 지난해 수요 조사를 통해 신청된 14개 어촌마을에 대하여 금년 2월 16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주민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공모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사업 이해 △주민참여도 제고 △어촌뉴딜 300사업 △지역특화사업 발굴 등 성공적인 유치를 위해 지역주민, 지자체, 컨설턴트 업체 등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새로운 미래와 희망의 날개를 펼치기 위하여 서로 간 긴밀한 협력 방안을 강구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고흥군 관계자는 "2022년 공모 사업에는 많은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김택영 기자



여성안심귀갓길 지원 업무 협약 '눈길'

여수시-전남대학교-여수경찰 협약... 촘촘한 안전 인프라 구축

여수시는 15일 오후 시청실에서 전남대학교(여수캠퍼스), 여수경찰서와 함께 여성안심귀갓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권오봉 여수시장과 조기량 전남대학교 부총장, 문병훈 여수경찰서장이 협약을 통해 범죄와 위협에 노출된 여성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구축 및 범죄예방 지원을 위해 협력시스템을 마련했다.

협약서에는 여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구축을 위해 범죄예방협의체 운영과 방범시설물 구축, 순찰활동 강화 등 다양한 범죄예방 사업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시는 여성안심도시 조성을 위한 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확대를 총괄 운영하고, 전남대학교는 미평동 일원 여성안심구역 집중 예방 순찰을 강화하기

로 했다. 여수경찰서에서는 위급상황 발생 시 현장대응 체계와 탄력 순찰 등 적극 지원에 나선다.

여수시는 올해 신규 사업으로 셉테드(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활용한 여성안심귀갓길 안내도 및 슬라임등을 43개소에 설치해 여성과 아동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사업을 펼칠 예정이며, 여성친화도시 3단계 지정을 위해 민·관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촘촘한 범죄 예방 환경 구축을 위해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안전에 취약한 여성들을 위해 여성안심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여수=오상호 기자

순천시, 직원 교육 패러다임 '소통'으로 전환

순천시는 조직의 탄탄한 기반을 다지고 개인의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어 포스트코로나 시대 대비 직원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 순천시 '침출어람' MZ세대에게 소통하며 배우다

순천시 전체 직원 1,680여 명 중 1980년 이후 출생자는 49%, 그 중 1990년대생은 24%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MZ세대 구성원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리버스 멘토링 제도를 도입해 세대를 아우르는 원활한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리버스 멘토링은 선배가 후배를 가르치던 기존 멘토링 방식과는 달리 후배가 선배의 멘토를 맡아 젊은 세대와의 소통은 물론 최신 트렌드에 대해 공유하는 새로운 소통방식이다.

1기는 3월부터 6월까지 멘티(국장)와 멘토(임용 3년 이하 만 30세 이하 공무원)가 짝을 이뤄 매월 1회 이상 만나 다양한 활동을 함께 펼친다. SNS 활용 방법, 라이프 스타일 및 음악·문화생활 등 관심사를 공유하는 등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들로 진행된다.

▶ 내년의 성장, 신규 공무원의



적응력 높인다

최근 순천시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과 더불어 Z세대의 신규 임용자가 크게 증가하는 신·구 세대교체의 시대적 상황에 직면했다.

이에 조직 구성원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력을 키우고자 2020~2021년 신규 공무원을 대상으로 5월에 소통 공감 아카데미를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팀별 미션 수행으로 구성원 간의 소통과 단합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조직이해를 돕고 직무로 인한 스트레스 자가진단, 자기관리, 셀프 감정코칭 등 전문가의 강의와 체험도 함께 진행된다.

▶ 인적 네트워크 형성으로 조직 역량을 강화하다

순천시는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중 직무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무경험이 풍부한 선배 공무원이 직접 강사로 참여해 행정 경험과 업무 노하우 등을 공유

하여 선·후배 간 나눔의 조직문화를 꾀한다.

특히 통합적인 업무수행 능력의 필요성이 증대되면서 조직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중간관리자 6급 공무원들이 그 중심에 서 있다.

이를 위해 교육은 사람과 조직을 연결하는 역할을 익히는 리더십 역량 개발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 시민이 행복한 도시, 창의성에서 시작된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1년 정책 아카데미를 분기별로 운영한다. 정책 아카데미는 주요 정책 및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강연과 토론을 통해 시대변화에 대응하고 시정 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순천=김승호 기자

책과 함께 즐기로운 거리두기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이 잠시 멈췄습니다.

'책과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해 주세요.





